

# 돼지고기 수출증대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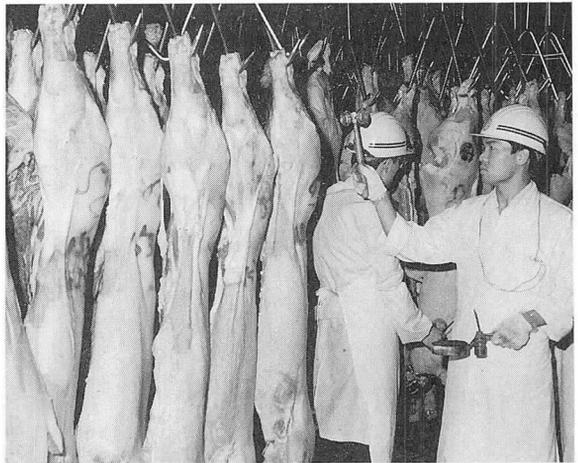
조성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전출장소)

## 1. 서론

UR협상 타결이후 이미 진공포장육의 유효기간이 자유화되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 축산물에 우리 소비자들 눈앞에 더 한층 다가오고 있다. 계속되는 축산 강국들의 공격에 수세의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수입개방이 되도 경쟁력이 있다는 돈육의 수출활성화를 통하여 공격형 축산업의 대표 역할을 기대했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돈육수입시장인 일본을 지척에 두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후조건이 유사하며, 상호보완적인 부위별 소비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경쟁국에 비해 수출여건은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특히, 일본에서 매년 수입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냉장돈육은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의 유통과정이 단시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제품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냉장돈육 수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돈육수출량은 일본 전체수입량의 약 2.



5%선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냉장육은 약 1.2% 선으로 점유율이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한국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일본 소비시장, 생산성 비교와 대책방안, 품질향상 저해요인과 해결책, 그리고 정부의 시책들을 살펴보면서 WTO체제하의 세계 육류전쟁에서 우리 양돈산업 또한 방패가 아닌 창으로서의 가능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본론

### 가. 일본 식육시장의 변화 추세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수요의 부족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00년의 일본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64만여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2.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에 따르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오는 2천년에는 지난해 50만여톤보다 14만톤이 더 늘어난 63만8천톤으로 추정된다. 반면 자급률은 계속 떨어져 지나해 66.4%에서 12.1% 떨어진 54.3%로 예상된다. 한편, 주요수출국 비율을 보면 대만, 덴마크가 43.2%, 31.0%에서 오는 2천년에는 38.2%, 27.6%로 각각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 반면, 미국은 15.0%에서 27.0%로 큰폭 증가를 예측하고 한국은 0.4%의 소폭 증가를 일본 수입상사와 가공메이커들이 추정한다. 눈앞의 황금어장을 다른 경쟁국에 양보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먼저 경쟁국간의 생산성 비교를 통해 우리의 난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000년 돈육 수입예측

	1994년 실적	2000년 예측 물량(천톤)		
		최소~최대	평균	
총수입량(천톤)	493	500~844	638	
냉장육 비율(%)	27.3	350~500	403	
국내자급률(%)	66.4	500~600	543	
수출국별 점유율(%)	대만	43.2	266~430	382
	덴마크	31.0	200~310	276
	미국	15.0	200~328	270
	캐나다	5.9	50~100	70
	한국	2.5	5~50	29
	네덜란드	0.2	1~5	11
기타	2.2	15~50	38	

(참고 : 한국농어민신문 '96. 6. 26)

〈표 2〉 각국의 비육돈 생산비 비교(1992)

(단위 : 원/100kg)

	한국	일본	미국	대만	덴마크	네덜란드
가축비	41,430	85,950	21,680	31,340	61,020	52,870
사료비	66,230	63,690	37,000	74,670	39,860	46,970
인건비	20,430	21,360	12,100	10,930	8,770	10,400
치료약품비	1,480	2,800	2,450	1,950	670	1,150
수도광열비	510	2,500	5,980	850	760	-
농기구비	1,150	1,180	-	220	3,190	11,470
기타	4,860	5,070	620	-	5,270	-
계	136,090	183,180	79,830	119,950	119,540	122,860
비교지수(한국=100)	100	135	59	88	88	90

(참고 : 미트저널 39 : 39-73, 1995)

### 나. 생산성 비교와 대책

국제 경쟁력의 타당성은 그 생산성과 가격에 있다. 〈표 2〉는 경쟁국과의 생산비를 비교한 것으로 미국, 덴마크와 비교해 100 : 59, 100 : 88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94년 현재 40%이상 일본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우기 대만이 외국의 싼 노동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생산비에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단지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확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입니다.”라고 말한 세계식량농업기구 축산보건부 육류, 낙농담당 총괄책임자인 피란 박사의 지적처럼 우리의 생산비 절감이 국제경쟁력 향상에 필수 조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다.

### 다. 한국 수출 돼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의 돼지 사육두수는 6백49만두(95년 9월 1일 현재)로 호당 사육두수는 135두에 달한

다. 이제 부업양돈장의 형태를 탈피해 전업규모화되는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수출 규격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다.

첫째, 돼지사양과 출하에서 이미 수출돈으로써의 상품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당연히 수출돈은 규격돈이어야함을 알면서 처음 출발점인 종돈개량에서 이미 일관성이 결여되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육질 부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경제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균일화된 종돈개량과 PSS(스트레스증후군을 가진 돼지) 등의 불량인자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적절한 시기의 거세, 지방침작 억제제를 위한 사료급여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출하자들의 경우, 아직도 육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최종 상품이 출하 도중 구타등에 의해 상품가치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도 농장주의 의식변화가 급선무이다.

둘째, 규격돈과 거세가 정착되려면 등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해당 법규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수출규격돈인 거세하고 생체중이 105~115kg(탕박기준 77~88kg)가 되는 돼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변동이 많은 돈육시세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 부분의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생산(도축등)공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저하이다. 타 경쟁국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설비와 공정관리 그리고 이에 관한 전문가가 태반으로 부족하다. 더우기 위생관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관련 위생법은 이부분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위생관념은 도축등의 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양 초기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문제이다. PSE돈 방지를 위한 방안 강구, 부분육



가공의 정확성 그리고 포장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일본시장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96년 8월부터 S.G(Safe Guard)가 발동되면서 동결육보다는 냉장육 수입이 확대되어질 전망이다. 또한 수출규격의 다양화와 신규격 개발에 가공수출업체가 노력하여 일본바이어의 요구에도 대처할 수 있고 별도의 정형이나 가공없이 수입상태로 즉시 판매하는 방법도 좋은 시장접근이라 고려된다. 아울러 철저한 품질관리가 소비자까지 이루어져 문제 발생시 그 처리까지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다섯째, 3D기피현상으로 양축농가는 물론 생산공장에서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특히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학교 설립과 인재양성을 위해 특례 보충역 제도 도입 또는 인력난 해결을 위해 대만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등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93년 축협중앙회 조사부 자료에 따르면 100두이하 사육규모가 500두 이상 사육규모의 두당 사육비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 158,470원과 124,578원으로 사육두수의 전업농규모화가 바로 경쟁력 향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돼지사양과 출하에서 이미  
수출돈으로써의 상품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당연히 수출돈은 규격돈이어야함을 알면서 처음 출발점인  
종돈개량에서 이미 일관성이 결여되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육질  
부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경제형질에서 다른 형질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균일화된 종돈개량과  
PSS(스트레스증후군을 가진 돼지) 등의 불량인자 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적절한 시기의 거세,  
지방침착 억제를 위한 사료급여체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 라. 정부의 '96년 주요 양돈 시책

올해의 정부시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양돈산업을 발전지향적인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중인데 먼저 발육이 빠르며 육질이 좋고 질병이 없는 청정화된 종돈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전문종돈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양돈전업농가 육성을 위해 전년도보다 43%가 늘어난 1,669억을 돼지계열화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돼지전염병 근절대책을 추진중으로 돼지콜레라는 2001년, 오제스키병은 2003년 청정화를 목표로 단계별 질병근절 및 방역대책을 추진중이다. 그리고 수출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가공장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수출업체에 대해서 규격돈 구매자금과 냉장육 생산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규격돈 출하농가에 비육돈후기사료(두당 3~5천원)를 지원하며, 커다란 문제인 돼지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자원화 적정모델 9개를 설정하여 양돈농가들이 지역여건과 양축실정 등을 감안하여 선택토록 홍보해 나가고 있고 이 분야에 1,18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을 위한 한국

산 돼지고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육류수출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살아있는 해외정보를 수집, 제공토록 하는 한편, 우리 돼지고기에 대한 홍보와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강화하여 2001년 돼지고기 12만톤 수출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다.

### 3. 결론

위에서 우리나라 돈육생산의 현주소를 파악함과 동시에 수출품으로서의 가능성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는 우리의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시장성을 그리고 타 경쟁국과도 비교해 보았다.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보다도 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최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리고 이 변화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등급제의 전국 실시와 법의 엄정한 적용이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적 보조하 하겠다. 이렇게 될 때 돈육산업도 수출품목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 내리라 생각한다.